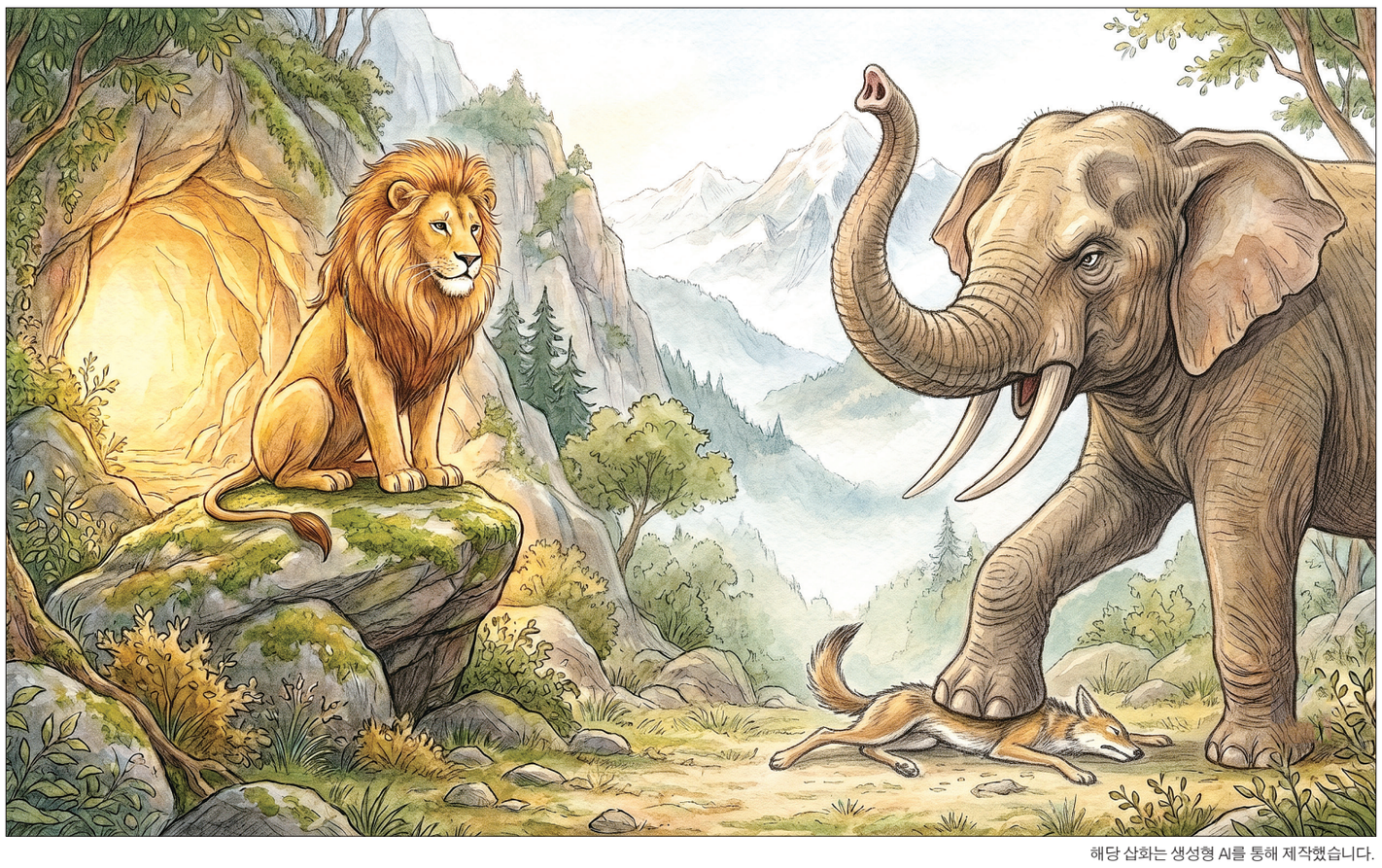
승냥이의 교만

철학자와 함께 읽는 불교 동화

⑪ 교만의 끝 : '사자를 흉내 낸 승냥이'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사자 흉내 내다 자멸에 이른 승냥이
강자와 자신 동일시한 자의 오만함
교만이 초래한 비극 보여주는 동화
'강자 동일시' 현상, 경쟁이 만든 욕망
타인 모방 아닌 행복 본질 성찰 필요

만나면 자기 얘기는 안 하고 잘나가는 주변 사람 이야기만 하는 이가 있다. 어제는 국회의원, 또는 시장과 만났고 며칠 전에는 유명한 대학 교수와 오랫동안 술을 마시면서 깊은 대화를 했다는 식이다. 권력이나 명성이 있는 사람과의 친분을 과시해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할 수 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는 오히려 자신이 나약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말하는 것이니 말이다.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장면을 주위에서 목격하게 된다. "우리 아들은 의사고 동생은 검사야"라는 식의 말을 종종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는 가족에 대한 자랑뿐만 아니라 자신 역시 그 정도의 위치에 있으니 존재 가치를 인정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 앞서 말한 일종의 인정 욕구인 것이다. 어느 드라마 제목처럼,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자신이 그 대상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의사의 권위와 검사의 권력이 자기에게도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때 나오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위험한 감정이다. 여기에 빠지면 자칫 주변 권력을 이용해서 사기를 칠 수도 있으며, 대형 사고로 이어져 스스로 파멸에 이르기도 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불교 동화 '사자를 흉내 낸 승냥이'는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동화는 교만의 끝이 얼마나 무서운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승냥이가 사자 흉내를 내다가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이야기다. 원래 제목은 '비로차 자타카(Viroca Jātaka)'이다. 여기서 '비로차'는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라는 뜻이다. 대일여래(大日如來)로 불리는 비로자나불(Vairocana) 역시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다. 그런데 제목이 조금 이상하다. 교만을 떨다가 자멸한 승냥이를 빛나는 존재라고 했기 때문이다. 어찌 된 사연인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아주 오랜 옛날 히말라야 산기슭 황금 동굴에 용맹하고 자비로운 사자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사자가 사냥을 마치고 동굴로 돌아오다가 한 승냥이와 마주치게 된다. 겁에 질린 승냥이는 도망갈 곳을 찾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말한다.

"위대한 백수의 왕이시여, 제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길 테니 고기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음이 너그러운 사자는 승냥이를 거두고 사냥한 먹이를 함께 나누면서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승냥이는 너무 잘 먹은 탓인지 몸이 점점 비대해졌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급기야 이런 생각까지 하기에 이른다.

'사자와 나는 똑같이 네발 달린 짐승인데, 도대체 뭐가 다르단 말인가. 왜 내가 매번 사자가 사냥해 온 고기나 얻어먹으면서 살아야 하지. 나도 사자처럼 코끼리를 직접 사냥해서 고기를 먹어야겠다.'

마침내 승냥이는 사자에게 직접 코끼리를 사냥하겠다고 말한다. 승냥이의 오만함을 알아차린 사자는 이렇게 조언한다.

"승냥이여, 그대의 몸으로는 결코 코끼리와 대적할 수 없다. 코끼리를 죽일 수 있는 승냥이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 내가 얻어다 주는 고기를 먹고 지내라."

이처럼 말렸지만, 승냥이는 말을 듣지 않고 코끼리를 사냥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사자는 어쩔 수 없이 지켜봐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승냥이는 황금 동굴에서 나와 사자처럼 기지개를 켰다. 그리고 지나가던 코끼리의 정수리를 향해 용맹스럽게 뛰어들었다. 하지만 정수리에 닿기도 전에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코끼리는 땅에 넘어진 승냥이 머리를 커다란 발로 사정없이 밟아버렸다. 결국 승냥이는 온몸이 부서진 채 숨을 거두게 된다. 무모한 장면을 지켜본 사자가 말한다.

"그대의 머리가 쪼개지고 박살 나는구나. 그대의 모든 늑골 또한 파괴됐다. 오늘 참으로 눈부시게 빛나는구나."

교만의 늪에 빠져 목숨을 잃게 된 전생의 승냥이는 지금의 데바닷타이며, 사자는 바로 부처님이었다.

교만의 끝, 자멸

동화 '사자를 흉내 낸 승냥이'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다. 당시 부처님의 사촌인 데바닷타는 교단 내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게 된다. 마치 동화 속 승냥이가 사자가 물어다 준 사냥감 덕분에 살이 찐 것처럼, 데바닷타 역시 부처님 덕분에 승가에서 위세와 영예를 누린 것이다.

그런데 세력이 조금씩 커지자 교만해진 데바닷타는 교단을 분열시키고 교주 행세를 하기 시작한다. 부처님 덕분에 얻게 된 것인데, 마치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나중에는 부처님을 암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만다. 그는 땅이 갈라져 무간지옥에 떨어졌다고 경전에서는 전한다. 교만의 끝에 이른 자의 비극을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제목을 빛나는 존재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승냥이의 무모하고 교만한 행동에 대한 역설과 풍자가 담겨 있다. 사자가 주는 고기를 먹고 몸집이 커지자, 승냥이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라고 착각했다. 그런 승냥이의 허세와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붙인 것이다. 동화 속 사자의 말처럼 승냥이는 코끼리의 발에 밟혀 눈부시게 빛나는 죽음을 맞이했다.

이 동화를 읽으면서 한때 온 나라를 들썩였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떠올랐다. 그는 공적인 직책이 없는데도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문화, 체육계와 여러 기업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다 불법 행위가 드러났고 결국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자신은 물론 대통령까지 파면에 이르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다. 어찌 보면 동화 속 승냥이처럼 행동하다 자멸에 이른 셈이다.

널리 알려진 이솝 우화 가운데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가 있다. 당나귀가 사냥꾼들이 말려 놓은 사자 가죽을 쓰고 마을로 들어가 사자 흉내를 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모두 도망쳤지만, 당나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잡아다가 실컷 두들겨 팬다. 이 장면을 옆에서 지켜본 여우가 말한다.

"네 목소리를 들으니, 누군지 알겠구나."

당나귀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찌 목소리뿐이겠는가. 아무리 사자의 가죽을 뒤집어쓴다 해도 당나귀의 큰 귀는 숨길 수 없는 법이다. 다른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뜻이다. 힘의 원천이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용맹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사자처럼 행동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다른 이들이 자신을 강자로 인정해 줄 것이라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한 착각이 무의식에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앞서 말한 교만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게 된다.

오늘날 돈 중독과 일중독에 빠진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용어로 '강자 동일시'라는 말이 있다. 글자 그대로 나를 강자와 동일시하거나 혹은 모방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강자에 대한 부러움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 정의는 약자한테 엄격하고 강자에게 관대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의 가치관과 욕망을 받아들이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중독에 빠질 만큼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다. 열심히 인생을 산다고 자위하면서.

여기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권력이나 돈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또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강자인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다. 마치 동화 속 승냥이가 사자처럼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강자에 대한 부러움과 무력감이 섞여서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과연 사자처럼 살면 행복하고 승냥이로 살면 불행한 것일까? 승냥이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 자족하는 삶이 있을 텐데 말이다. 무엇보다 강자가 돼야 한다는 강박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것이 본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경쟁 사회가 만들어낸 욕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크 라캉의 지적처럼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가 아니던가.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내 것도 아닌 욕망에 모든 에너지를 쓰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를 돌아보지 않고 사자를 흉내 내다가 자멸에 이르는 우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일야 전 전북불교대학 학장

정미년 불교달력은 마하몰로 주문주세요!!

마하몰에서는 불기 2571(서기2027)년 불교달력을 주문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와 사이즈, 더 좋은 이미지와 사진들로 구성된 달력들을 다양하게 준비 하였습니다. 한지, 달력(大, 小), 차걸이, 수첩, 마닐라, 등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제작 · 공급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202호 동심불 이야기 5월


201호 천진불


203호 산사의 향기


204호 암자에 길을 묻다


205호 그리운 금수강산


206호 부처님의 꽃 수련의 세계


208호 밝고 향기롭게


102호 관음도(한지)


211호 마음의 고향


214호 수행정진


215호 견성성불 달마도


216호 부처님의 성지


217호 산사의 꽃 야생화


224호 12별자리와 신비한 부적


참나를 찾아서(차걸이)


오늘은 좋은날 행복한 미소(차걸이)


밝고 향기롭게(수첩) 동심불 이야기 (수첩)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